

강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총력 대응

강진군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 선정을 목표로 부서 간 협업과 대응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원 군수 주재로 간부 공무원 회의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성일 부군수와 군청 실·과·소장, 읍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김진관 인구정책과장은 2차 공모사업과 달라진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순환경제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할과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안내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진행된 농어촌 기본소득 브레인스토밍에 이어 공모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서별 연계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기본소득과 지역 정책 간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강

진원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평가 기준인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주민참여도, 지역 활성화, 정책 연계 등 5개 지표와 가점 항목을 직접 확인하며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 군수는 “강진이 잘하고 있는 반값여행과 빈집 리모델링, 푸소(FU-SO)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강진에서 처음 시행한 농업인 공익수당과 육아수당도 정부와 전남도로 확대 시행되는 등 강진의 정책 역량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진의 특성과 강점을 담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해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에 선정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운재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선정 전략회의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목포시, 다화용기 세척사업 ‘에코워싱’ 본격 운영



목포시 에코워싱 사업단이 축제 다화용기를 관리하고 있다.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다화용기 세척사업단 ‘에코워싱’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코워싱은 다화용기의 공급부터 회수·세척·재사용까지 전 과정을 맡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사업이다.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센터장 조태섭)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과 광역·시 자활기금 지원을 받아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관련 시설을

마련했다. 특히 에코워싱은 이번 목포항구축제에서 음식부스에 사용되는 다화용기의 공급·회수·세척을 전담해 축제 기간 다화용기가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에코워싱은 환경 보호와 자활 일자리 창출을 함께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지역 축제와 행사에서 다화용기 사용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제25기 보건소 은빛건강대학 수료식 성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자가 건강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은빛건강대학이 수료식을 열고 한 해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함평군은 20일 “제25기 은빛건강대학 수료식”이 이날 오전 보건소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함평군 보건소가 운영하는 은빛건강대학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건강관리법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만성질환 예방 관리 ▲영양·운동·구강 교육 ▲치매 예방 활동 등 건강·교양·취미 분야의 다양한 과정이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이날 오 함평군수(은빛건강대학 학장)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수료생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지난 8개월간의 배움과 성장을 함께 축하했다. 수료식은 수료증 수여와 학장(군수) 축하말씀, 운영 영상 시청, 졸업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함평군 보건소는 내년에 은빛건강대학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치매안심센터, 치매가족 돌봄 부담 덜다

영암군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 가족과 보호자를 위해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 1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들에게 돌봄교육과 휴식,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상담·교육에 체험활동을 더해 다양성을 높였다.

프로그램은 ‘가치 돌봄 가족교실’

과 ‘도란도란 자조모임’으로 구성된다. 가족교실에서는 치매 단계별 돌봄방법과 일상생활 관리 교육을 비롯해 손수건 염색체험, 오란다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자조모임에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희숙 영

암군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환자 가족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교육과 체험, 가족 간 교류를 통해 건강한 돌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도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기철 기자

무안 드림스타트, 양육자 대상 공예 프로그램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드림스타트가 지난 17일 남악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양육자 16명을 대상으로 공예 프로그램 ‘실 한 올, 꿈 한 올’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육자들이 일상과 양육 중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공예활동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실을 엮어 매듭을 만드는 공예인 마크라메의 기본 매듭법을 익혔다. 이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문에 걸어 장식하는 리스 형태의 도어벨을 제작했다. 양육자들은 매듭을 엮고 각자의 작품을 완성했으며, 함께 공예활동을 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영선 무안군 주민생활과장은 “양육자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신안군, 벼 수매 전 잔류농약 무료 검사 지원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본격적인 벼 수확·수매철을 맞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수매 전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에 따른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쌀 출하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돕기 위해 추진된다.

신안군 농업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수매 예정인 벼(쌀) 시료 0.5~1kg을 깨끗한 봉투나 지퍼백에 담아 압해읍에 있는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또는 해당 읍·면 지소에 제출하면 된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463개 성분으로, 농가는 검사 결과를 통해 수매 전 잔류농약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성태 기자

